



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, 경북지역 종교관계자와 '자살예방 협력' 간담회 개최

- 4. 17.(금), 경북지역 종교계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협력, 번개탄 판매점 방문 및 생명지킴 스티커 부착 등 현장 실천 병행-

□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(본부장 송민섭)는 4월 17일(금),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에서 경북지역 종교계 관계자들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□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내 가장 가까운 생활공동체인 종교계와 협력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그간 광주·전남, 전북, 경기, 충남 등 전국 주요 시·도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종교계 협력 간담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전국 단위 생명존중 협력체계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다.

* 불교(관음사·불국사·은해사), 천주교(안동교구), 기독교(포항노회), 원불교(포항교당)

□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교 지도자의 '생명지킴이' 역할 수행, 설교·법문·교육 등을 통한 생명존중 가치 확산,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, 번개탄 판매점 방문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(109) 홍보 등 실천 중심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○ 특히, 번개탄 등 자살에 활용되는 물품의 이용 접근을 줄이기 위해 종교단체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편의점·마트 등 판매업소에 생명지킴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, 지역 상점 및 종교시설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발적 참여 확산 방안을 마련하였다.

□ 한편 경북은 ‘생명존중안심마을*’ 사업을 중심으로 18개 시·군, 92개 읍·면·동, 892개 기관·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지역 기반 확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.

* 지역사회 기관·단체가 효과성이 검증된 자살예방 활동에 참여,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발견, 전문기관에 의뢰·연계하는 읍·면·동 단위 자살예방 안전망

○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관계기관은 ‘생명존중안심마을’ 사업과 연계하여 종교계 협력 모델의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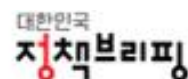
○ 경상북도 관계자들은 “종교계는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중요한 지역사회 공동체”라며, “도에서 추진 중인 생명존중 정책과 연계하여 종교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그간 추진본부는 전국 17개 시·도를 대상으로 종교계 협력 간담회를 추진하여 종교계·지역상점 등 생활밀착 자원을 연계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현장 중심 예방활동 체계를 구축하였다.

○ 추진본부 관계자는 “종교계 협업 사례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활동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, 지역 여건에 맞는 생명존중 협력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”라고 밝혔다.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☎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☎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장	조충현 (044-200-2549)
	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담당자	사무관	조하나 (044-200-2552)





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